



정교회주보

제2486호

2024.08.18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비스키 데차니 수도원(사진)은 코소보 근처에 있는 세르비아 정교회 수도원이다.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과 뛰어난 건축 및 교회 예술로 유명하다. 14세기 중반에 세르비아의 스테판 데차니스키 왕에 의해 지어졌으며, 공사는 총 8년이 걸렸다. 세르비아 정교회 전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마태오 제8주일
성 레온, 성 헤르메스,
성 세라피온 순교자
(제7조 • 조과 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7조 부활 찬양송 82
- 성모 안식 축일 찬양송 181
- 성당 찬양송
- 성모 안식 축일 시기송 181
- 사도경 : 고린토 전 1,10~17 (봉)183
- 복음경 : 마태오 14,14~22 ... 11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내가 너희의 죄가 되었고

내아들아, 너는 아직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졌다.”(이사야 53,9 참조)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내가 저지른 잔혹한 악을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한다. 너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고통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말을 들어보아라. 나는 너의 이기적인 잔인성에 희생된 이들을 대신했다. 그러므로 너의 범죄는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는 이 범죄로 괴로워하는 너를 대신했다. 나는 이 상황의 매듭이다. 오직 나만이 이것을 풀 수 있다. 왜냐하면 야기된 피해와 피해의 원인 모두를 바로 내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속죄와 용서는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부자가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그리스도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남자만 오천 명이니,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만 오천 명 이상이 될 것인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으로 이 모든 사람을 먹인 기적은, 정말이지 인간의 모든 논리와 예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물질적, 사회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빵 다섯 개는 성찬례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감사의 성찬례는 사람들이 먹는 천상의 빵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교회에게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빵이십니다. 많은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읽으며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하셔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처럼 믿었습니다(요한 6,26).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매일 같은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이 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는 수고를 덜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물질적인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중시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양식(성체성혈)이 먼저이고, 일시적인 양식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요한 6,27)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영적 계발을 하는 것을 먼저 두시고, 물질적 재화를 얻는 것을 그 다음에 두십니다. 사람이 물질적 재화를 얻기 위해 쏟는 스트레스 가득한 염려와 끈질긴 노력은 하느님께서 좋게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분명히 인간의 물질적 필요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얻고자 요청하는 것에 순서를 매깁니다. 물질적인 것이 결코 우리의 영적인 유익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군중을 가르치시고 나서 먹을 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재물을 많이 얻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빵이신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만족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생명의 빵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부자로 여깁시다.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꿀 맛

꿀은 매우 맛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된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분별력이 없이 당신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나아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당신의 은총으로 바꾸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인들이 다다른 높은 영적 수준에 대해 읽을 때, 당신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영적인 삶을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적 상태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추락할 것이고, 그때는 악마가 그 기회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성 이삭 시리아인(7세기)

성서는 영적인 약이다

성서는 당신의 실망과 낙담을 없애버리고, 당신 영혼 안에 기쁨이 지속되게 한다.

악을 쳐부수고, 덕을 뿌리내리며, 폭풍우를 만난 사람이 겪는 것 같은 혼란에 빠지도록 놔두지 않는다.

삶의 바다는 거친 숨과 거품을 뿜어내지만 당신은 평화로이 헤쳐 나간다.

왜냐하면 당신은 배의 선장으로서 성서를 읽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이 배의 밧줄은 삶의 시련과 유혹에 의해 끊어지지 않는다.

성서는 무기력함을 없애고, 기쁨이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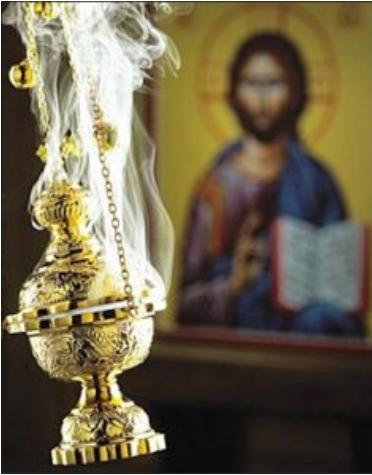
가난한 사람을 부자보다도 더 부유하게 만든다. 부자를 지켜주며, 죄인이 덕스러운 사람이 되게 한다.

성서는 영적인 약이다.

성서는 신적이고 비밀스러운 노래이며, 정념(情念, 파토스)을 없애는 힘이다.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407년 안식)





알림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여름 수련회

지난 5-6일(월-화)에 성당에서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주제로 주일학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예배와 주제강의 외에도 아이스 스케이팅과 물놀이 등 재미있는 활동을 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특히 6일에는 성찬예배를 드리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변모 축일을 축하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공사

심야 보일러 노후화로 누수 및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교체 및 수중 모터 위치 변경 공사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있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주일 예배’ 참석

지난 주일(11일), NCKK가 주관으로 공덕 감리교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주일 예배’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가 참석했습니다. 임신부는 ‘오늘의 기도’ 부분을 맡아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중한 가르침

여러분에게 슬픔이 다가오더라도 내색하지 마시다. 인내로써 이겨냅니다.

한 사람에게도 슬픔을 주면 안됩니다.

이렇게 실천에 옮기면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후세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영성의 샘터

하느님과의 결합

어떤 사부가 말했다.

“언제나 그대의 눈앞에 하느님을 두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잠을 자기 위해 눕든, 자리에서 일어나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탄은 감히 그대를 괴롭힐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정신이 하느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한 하느님의 은총이 그대를 감싸주실 것이기 때문이다.”